

해 외 출 장 보 고 서

I. 출장 개요

- 출장건명: 한·중 FTA협상에 대비한 목재류 수급 및 유통동향 파악을 위한 해외출장
- 출장 목적
 - 본 출장은 한·중 FTA 임산물협상에 대비하여 중국내 목재 수급 및 유통동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 출장 기간: 2011년 8월 28일 ~ 9월 2일 (5박 6일)
- 출장자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산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장 철 수
산림정책연구실	초청전문연구원	송 성 환

-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자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북경임업대학임산물무역 연구센터	부주임	Yin Zhonghua	13522412577
	상무부주임	Cheng Bapdong	13811682676
중국 목재 및 목제품유통 협회	명예회장	Zhu Guangqian	13901083394
	회장	Liu Nengwen	13301398856
	부회장	Tao YiMing	01068391871
국가임업국 경제발전연구센터	부주임	Wang Huanliang	01084239027
	부주임	Feng GuoQiang	
	편집장	Xu Qin	
하북성 임업국	비서장	Hou Jumin	13032608889
하북성임업과학연구원	부원장	Wang Yu Zhong	15032680656
합북성임업국과국제협력	주임과장	Shu Shourong	13081105595
중경똥바목재시장	경리	周涛	13801358012

○ 출장 일정

일정	주요 일정, 방문기관
8. 28 (일)	서울→중국
8. 29 (월)	북경임업대학 임산물무역연구센터 - 최근 중국 임산물 무역 현황 조사 중국 목재 및 목제품유통협회 - 중국 목재 및 목제품의 유통현황조사
8. 30 (화)	국가임업국 경제발전연구센터 - 임지이용 관련 정책 조사 북경→하북성 석가장시 이동
8. 31 (수)	하북성 임업국 - 집체림 운영 현황 조사 하북성 찬황현 (贊皇) 이동 - 대추 집체림 현황 조사 하북성→북경 이동
9. 1 (목)	북경 뚱바(东坝) 목재시장 - 원목 및 목제품 유통현황 조사
9. 2 (금)	북경→서울

II. 출장 결과

1. 북경임업대학 임산품무역연구센터

○ 최근의 중국임산품무역 관련 상황

- 최근 중국임업은 국내 인건비의 증가, 환율, 원자재가격의 상승, 무역환경의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인건비의 경우 일당 50위안에서 120위안으로 2.4배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인공림조성을 위한 조림에 영향을 줌으로서 식재면적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목재공급이 어려워지고 있음
- 원자재공급은 자국내 원시림에서 이루어지는데 보호정책을 취함에 따라 공급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인공림에서의 공급은 50%미만임
- 러시아가 주 수입원이나 수출세를 m³당 50유로(EU)로 올림에 따라 원목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러시아로부터 제재목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로 국내 업체가 직접 러시아에 들어가서 원목을 벌채하여 제재목으로 가공후 국내로 가져오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주 수입은 원목, 펄프, 폐지 등이며 주 수출은 합판, 가구, 목제품 등이며 대부분 외국과의 OEM방식에 의해 수출하고 있음
- 한국과의 목재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 일본 등지로 수출이 되고 있어 한국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목재교역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 현재는 중국 임산품의 국제 경쟁력분석과 영향 등을 연구하고 있음
- 지난 세기동안 빠르게 경제성장이 되면서 임산업부문에서의 기술력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은 기술을 제공하고 중국은 많은 인력과 값싼 토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중국과 한국이 목재교역부문에 상호 윈-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주요 목제품 생산지

- 목제품의 경우 각 성별로 특화 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 합판: 절강, 감숙, 산둥성
- 가구: 광둥성

○ 목제품 수출입 관세 및 비관세 장벽

- 98년이후 원목의 관세는 0%로 수입되고 있으며, 목제품 전체에 대해 기타 비관세 장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에 있어서는 원목, 제재목, 원목가구 등에는 임산자원 보호차원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합판, 섬유판, PB 등 가공목제품의 경우에는 증치세 감면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북경임업대학 임산품무역연구센터 Yin Zhonghua 부주임과 면담>



2. 중국 목재 및 목제품유통협회

○ 협회현황

- 협회설립: 1985년
- 회원사: 1,300개
- 주요회원협회부류: 7개 전업목재협회(마루바닥전문협회, 나무문전문협회, 목질방부전문협회, 공정재료전문협회, 도료등급평가위원회)

○ 주요 면담내용

- 중국목재 및 목제품유통협회는 중국정부가 설립한 목재관련 국내재 유통, 목재수입 및 유통을 포함해 목제품(제재목, 합판보드류, 목가공품)과 관련 방부제와 사용도료에 대한 품질검사 및 인증업무 등을 총괄하고 북경을 포함해 상해, 광주 등의 목재시장을 관리하고 있음
- 수입업체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어 수입원목의 80%가 협회를 통해 수입되고 있으며 목제품 또한 80%가 협회를 통해 수입 및 유통되며, 나머지 20%는 소규모 업체나 개인위주로 수입되고 유통됨
- 수출의 경우 수입국의 기준에 맞추어 품질 검사후 수출하거나 또는 각 수입국에서 인정하는 업체가 현지에 파견와서 품질 검사후 수출하는 외에 수입국의 인증을 받은 업체를 국내에 설립하여 품질을 관리하여 수출하는 등 맞춤형 수출을 하고 있음

-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와 지속적인 기술교류를 하고 있으며 1년에 1회 교류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교역에 대한 관심외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일본목재연합회와 교류를 하고 있는 반면 한국협회와의 교류는 아직 없어 향후 발전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동향으로서는 중국은 목제품의 5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주원인은 1998년부터 시작된 원시림보호정책으로 인해 국내재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인공림을 조성하거나 나무이용율을 제고하는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불법 벌채 및 불법 벌채목의 수입에 대해 국가적인 입장에서 국내재의 경우 목재운수증으로 통제하고, 수입목의 경우 생산지의 서류제출 등을 통해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으나 상대국에서의 서류제출이 늦어지거나 서류를 봉송하지 않을 경우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또한 50%이상이 목재수입 현지에서 바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확인을 통한 불법 목재수입 및 유통의 엄격한 통제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음.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목재의 수입과 관련해서는 국가간의 긴밀한 업무공조가 필요함
- 원목의 경우 국가임업국산하 임업단에서 벌채가 이루어지며 업체와의 가격협상을 통해 판매되고 제품화됨.
- 중국내 제재목의 주용도는 대부분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공원 바닥재, 가구 등으로 사용됨.

<중국 목재 및 목제품유통협회 간부 면담>



3. 중국국가임업국 경제발전연구센터

○ 임지이용관련 최근 정책 변화:

- 2010년 8월, 국가임업국은 < 전국림지보호이용계획강령(全國林地保護利用規劃綱要)> (2010-2012년) 을 정식으로 공포했는데 이는 중국 최초의 중장기 임지보호이용계획임.
- 강령에서는 임지는 국가의 중요한 자연자원이자 전략자원이며 산림의 생존과 발전의 근본으로, 목재와 임산물 공급 보장, 국토생태안전 보호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서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임지보호이용순환의 원칙을 네 가지로 확정했는데 첫 번째는 엄격한 보호와 중점을 부각하고 있음. 주요 골자로서는 현대임업발전과 생태문명건설의 전략적 요구에 따라, 현재 임지 자원을 엄격히 보호하고, 녹색생태공간을 적극적으로 넓힘. 생태가 대단히 중요하고, 생태가 취약한 지역의 임지 및 생산효율이 높은 목재, 목본 식용유 및 생물바이오 에너지 임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보호함.
- 두 번째, 지속적 이용과 효율을 제고시킴. 자원집약형, 친환경형 건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임업발전과 임지이용방식을 바꾸어 과학적으로 임지를 사용하여 임지의 생산력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임지이용을 촉진하여 조방적이고 저효율의 임지이용에서 고효율 집약적 임지이용으로 바꿈.
- 세 번째, 최적화된 구조와 합리적인 배치. 경제사회발전이 임지의 다기능 수요의 요구에 따라, 임지 보호이용 구조와 공간 배치를 최적화 시키며 임지 사용의 생태, 생산, 건설의 총괄적인 요구에 따라, 임지이용방향과 중점을 분명하게 나누고 임지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 네 번째, 조절 강화 및 과학적 관리. 임지보호이용관리의 메커니즘과 정책을 창조하여, 시설보장실시계획을 강화하며 임지관리를 거시적으로 제어하고 조절하여 유효성과 상대성을 증강시킴. 자연규칙과 경제규칙 순환에 맞추어, 각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지역에 맞게 설비와 정책을 세우며, 각 종류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
- <강령>에서 중국은 2020년까지 임지보유량을 31,230만ha까지 증가시켜 전국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2.5%이상까지 제고되도록 하는 것을 임지보호이용 전략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전국 산림보유량은 22,300만ha 이상 도달하도록 하며, 2005년에 비해 4,000만ha 정도 증가시킴.

- 2020년까지 산림윤회도가 23% 이상 도달하도록 실현할 것이며, 산림면적과 산림축적이 각각 2005년에 비해 4,000만 ha와 13억m³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따라 최근 국유림이 감소하고 집체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국유림을 지역주민의 보호하에 두고 지역주민의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산림자원을 유지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있음

<경제발전연구센터 전문가 회의>

<경제발전연구센터 관계자와 기념촬영>



4. 하북성 임업국

○ 하북성 현황:

- 북경 주변성으로 총면적은 18만km², 지형은 고원, 평원, 산림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
- 연평균 기온은 1.8℃에 불과한데 남북의 길이가 길어 차이가 큼
- 11개 시, 172개 현으로 인구 수는 총 7천만명
- 성 면적의 26%가 산지이며 2015년 까지 36%로 산지면적을 확대할 예정 (현재 74백만무의 산지가 조림되었고 향후 총 87백만무의 산지 조성: 1무는 200평으로 493만ha에서 580만ha의 산림을 조성할 예정)

○ 지역주민소득 증진을 위한 국유림 활용정책

- 집체림을 운영하여 주민소득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집체림은 마을(촌단위)주변의 국유림을 마을에 사는 주민들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임대해 주는 산림을 의미하며, 개혁 개방정책의 도입이후 활발하게 진행중임
- 임대기간은 50~70년이며 국가에 내는 임대료는 없으며 국가는 기술, 관정, 도로개설 등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됨. 가구별 임대지역선정은 촌위원회

회에서 투표로 결정을(2/3찬성)하게 되며 임대기간 중 임차인이 사망할 경우 임차를 한 가구에서 잔여기간을 이용할 수 있음. 또한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기업간의 거래가 가능함. 즉 개인이나 기업에게 자신의 집 체립을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으며 원래의 임대인이 개인이나 기업에 고용되어 노동의 대가로 인건비를 벌어 소득을 올릴 수가 있음. 다만 이러한 거래는 산지의 소유권이 국가에게 있으므로 단지 산지의 이용권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함. 단 마을이외의 외지인과의 거래는 허용되지 않음

- 최근에는 농촌인력의 고령화, 젊은 인력의 이농, 과소화 등으로 가족단위 경영이 어려움에 따라 가족들간의 합작 또는 기업에 대한 위탁경영 등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병충해 관리나, 노동력 확보, 선진 기술도입 등이 가능해 비용 절약, 병해충방지 및 관리 등이 유리함
- 개인에 대한 임대외에 마을 공동산림을 촌에서 집체소유기업에게 빌려 주고 임대료를 받아 마을 공동자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도 있음
- 중국에서는 퇴경환림제도(退耕換林: 경작지 또는 버려진 밭이나 기타 토지에 대해 나무를 심는 제도)에 의해 나무를 심어 산림을 조성하게 되면 1무(200평)당 매년 160위안(1위안당 180원을 적용하면 한화로 28,800원)을 농민에게 정부가 직접 지불하게 되므로 퇴경환림금 이외에 임대료, 임금, 자작농에 의한 소득 등을 통해 농가단위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
- 하북성에서는 기타 성과는 달리 과수 즉 배, 사과, 밤 등 과실류는 임업국에서 그리고 버섯류는 농업국에서 다루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과실류에 대한 모든 지원이 임업국에서 이루어지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와는 달리 정책의 집행이 수월함
- 하북성의 대표적인 과실로서는 배, 대추, 밤, 살구, 호두, 포도 등을 들 수 있으며 호두가 기후상 여건이 좋아 장려하는 등 최근 집체림은 주로 이러한 과실나무조성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이나 기술력이 있는 가족이나 법인을 활용한 재배가 늘어나는 추세임
- 이미 조성된 74백만무중 23백만무가 과실재배면적이며 배, 대추, 밤, 살구, 포도, 사과 등이 재배되고 있음
- 중국밤 수출량의 85% 정도가 하북성에서 생산된 밤이며, 천진에서 수집 후 수출되기 때문에 천진밤으로 불리고 있음. 중국내에서 밤은 군밤 또는 시럽을 묻힌 맛밤형태로 소비가 많이 되고 있음

<하북성 임업국 관계자 면담>



5. 하북성 석가장시 찬황현 집체림을 활용한 대추나무재배지 방문

- 찬황현은 석가장시에서 50km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구릉성지역이며
- 경작을 포기하여 버려진 평야 지역에 대추나무를 심어 퇴경환림을 만든 곳으로 전체 면적은 약 60만평(200ha)으로 현재는 기술력을 갖춘 1인이 직접 관리하고 기존에 임차한 주민들은 임대료를 받고 현지 고용되어 있는 상태임
- 본 재배지는 2005년 조성된 재배지로 1무당 45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연간 120만톤 1무당 2.5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으며, 연간 수입은 2억위안 (한화 360억) 정도임.
- 현장판매 대추가격은 2위안/kg이며 생산량의 30% 정도는 찬황현내에서 가공되며 나머지는 현외에서 가공됨. 주로 가공은 대추에 꿀을 묻혀서 판매하는 형태임.
- 이미 생대추용은 8월 중순에 수확이 끝난 상태며 현재는 건대추 즉 붉은 대추를 생산하기 위해 보전한 나무들만 대추가 달려있는 상태임
- 거래는 시장상인들이 이곳 현지에 와서 가격을 협상한 다음 현지 생산자가 수확을 하여 시장상인에게 공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음. 기술지도 및 병충해 관리에 대해서는 인근 과학원에서 수시로 현지를 방문하여 지도하고 있었음

<찬황현 집체림을 활용한 대추재배지>



6. 북경 뚱바 목재시장

- 규모: 330,000m²
- 거래 품목: 원목 및 제재목, 합판보드류, 특수목재, 목공예 등 내장재
- 입주업체 수: 총600개 업체
- 현황: 내년 현 위치에서 3km정도 떨어진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으며, 면적은 현재 규모의 2배 정도 부지를 확보하고 현재 공사 중으로 내년 5월 중 입주할 예정
- 조사결과:
 - 중국내에 가장 큰 목재시장으로서 북경, 상해, 광주 등 3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 목재 및 목제품유통협회의 통제를 받고 있음
 - 북경 목재시장은 민간이 중심의 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거래 품목별 불력이 조성되어 있고 국내재와 수입재 모두 취급하며 완제품, 반제품, 원목 등을 도매 및 소매 형태로 유통을 하고 있음
 - 품목별 정해진 가격은 없으며 각 입주업체별로 직접 구매자와 협상에 의해 체결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각 업체는 입주에 따른 임대료를 조합에 내고 조합에서는 목재시장 관리 및 운영, 외부 회사들과의 협조요청 등의 업무만 하고 있음. 한 달에 임대료는 1m²당 30위안(한화로 5,400원) 정도임
 - 주요 거래수종은 참나무, 소나무, 고로쇠나무, 삼목, 홍목 등으로 소나무는 특히 동북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인기가 있으며 m³당 2,600위안(한화로 약 468천원)정도에 거래가 됨. 홍목의 경우 운남지역 및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등에서 들여오며 가구재로 많이 활용되는데 kg단위로 판매되며 현재 1톤당 80만위안(한화로 약 1억4천만원 정도)에 거래됨. 북경 및 하

북지역에서 가장 큰 목재시장이므로 북경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목재 및 목제품을 유통하고 있음

- 합판보드류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재품시장이 동일 구역내에 있으며, 파티클보드 및 섬유판생산을 위해 합판을 만들고 남은 것들과 건축용 폐목재 등도 현지에서 업체간에 거래됨

<합판 및 제재목 판매상가>



<집성재 및 캐나다 수입목재 판매상가>

